

吉野作造의 政治思想에 關한 小考*

崔 相 龍

I. 머리말

III. 吉野作造의 韓國論

II. 吉野作造의 政治思想

I. 머 리 말

吉野作造는 日本歷史에 있어서 大正데모크라시로 불리우는 時代(1912~1925)를 대표할만한 政治思想家이다. 그래서 많은 日本人들은 그를 「大正 데모크라시의 使徒」라 부르곤 한다.

大正데모크라시의 개념은 그 內包와 外延에 대해서 確固한 正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넓고, 좁은 두가지 의미로 쓰여왔다. 우선 넓은 의미의 大正데모크라시는 大正期日本에서의 政治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등 여러 영역에 걸친 개혁운동으로서, 말하자면 당시 日本이 직면한 거대한 時代精神의 반영이었다. 이에 비해 좁은 의미의 大正데모크라시는 大正期日本을 특징지우는 정치적 현상에 한정하여, 이를테면 政黨政治의 확립과 같이 日本국내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적 개혁운동 및 이데올로기로 파악한다.

그런데 논의의 편의상 大正데모크라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대체로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¹⁾

* 이 논문은 『亞細亞研究』(第76號)에 發表한 “大正데모크라시와 吉野作造” 가운데 吉野의 政治思想에 관한 부분을 발췌·가필한 것이다.

1) 榮澤幸二, 『大正デモクラシー期の政治思想』, 研文出版, (1981), p. 5.

第1段階는 準備期로서 1905년에서 1913년까지, 第2段階는 全盛期로서 1914년에서 1918년까지, 第3段階는 分化期로서 1919년에서 1925년까지로 볼 수 있으며, 각 단계에 있어서의 大正데모크라시 思想의 존재형태를 분류해 보면, 1단계는 立憲主義, 2단계는 民本主義, 그리고 3단계는 이른바 「政治的·經濟的·社會的 데모크라시」를 지도이론으로 하고 있다. 1단계의 立憲主義가 노골적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였음에 반해 2단계의 民本主義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이 입헌주의만큼 강하지 않고, 非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점차 강화해 갔다. 그리고 3단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데모크라시」는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을 포함하여 현저히 非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吉野作造는 大正데모크라시운동의 이론적 지도자로서 1단계의 立憲主義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 2단계에서 大正데모크라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獨自의 民本主義思想을 전개했고, 그후 3단계에서 社會主義의 등장에 대응하면서 自己修正을 통하여 일관되게 民本主義를 견지함으로써 大正期日本의 政治思想을 주도해 갔다.

이 小論에서 筆者는 大正데모크라시를, 좁은 의미, 즉 露日戰爭後 大正末까지 日本제국주의형성기에 나타난 정치적 개혁운동과 이데올로기로 파악하고 大正데모크라시의 전성기인 第2期の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吉野作造의 政治思想을, 그의 立憲主義論, 民本主義, 帝國主義觀, 그리고 中國 및 韓國論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吉野作造의 政治思想

1. 學問·宗教·政治에 대한 態度

大正데모크라시운동은 한편 제 1차 憲政擁護운동과 같은 職業政治人을 중심으로 하는 反정부운동과 공통점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 학자,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한 知識人의 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²⁾ 吉野

는 그러한 의미에서 후자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吉野는 이데올로그이전에 학자였다. 따라서 이데올로그로서의 吉野의 목적도 權力의 획득이 아니라 眞理의 탐구요 그 실천이었다. 大正末年 그가 당시의 학생운동을 비판하여 「내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眞理와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勢力을 중시하는 것」³⁾이라고 했다. 學者로서의 吉野의 생애는 政治學者로서의 생애와 歷史家로서의 그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학자로서의 吉野는 憲政의 이론을 구성하여 日本의 정치적 현실을 비판하는 視點과 道具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法 개념의 형식적 적용으로 헌법의 내용을 결정하려는 法實證主義에 대한 도전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행동으로 憲政 그 자체를 부정하려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歷史家 吉野에 있어서 모든 歷史의 個體는 神에 직결되어 있다. 歷史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神을 구하는 것이요, 歷史의 個體에 普遍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神을 인식하는 것이다. 歷史學을 궁극에 있어서 神의 認識이라고 본 吉野의 입장에서는 學問과 信仰은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吉野의 사상형성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준 최초의 사건은 1898년 그가 第2高法科 2年在學때 基督教에 귀의한 것이었다. 1878년 宮城縣 志田郡 古川町(現古川市)에서 소규모 綿製造業을 경영하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吉野는 1892년 高等小學校를 마친후 宮城縣 尋常中學校에 입학, 中 2年이래 特待生이 되어 졸업때는 高等學校無試驗入學의 자격을 얻었다. 재학중에는 數學에 흥미를 가지고 장차 帝國大學 理科에 입학하여 數學을 전공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가 數學者가 되려는 생각은 中 4年때부터 후퇴하게 되고, 점차 文科大學에서 哲學을 공부하려고

2) 三谷太一郎은 그의 著書, 『大正デモクラシー論』, (中央公論社, 1974), p. 156에서 吉野를 政治的 非職業人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3) 吉野作造, “青年學生의 實際運動”, 吉野作造, 『日本無產政黨論 附學生と思想犯』, (一元社, 1929年), p. 336.

마음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1897년 中學을 졸업한 吉野는 二高선배인 木下淑夫의 끈질긴 설득으로 다시 文科지망을 포기하고 결국 二高의 法科에 입학했다. 그런데 二高재학중의 吉野가 기독교에 접하게 된 것은 1892년 이래 「仙臺」의 尙綱女學校에서 傳道활동을 하고 미국부인 선교사 바젤(Anne S. Buzzell)이 주재하던 聖經班에서였다. 吉野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 기독교에 접한 것은 1895년으로 아직 中學時代였다」⁴⁾고 하나 信仰의 문제로 발전할만한 기독교와의 만남은 이 聖經班에서였다. 吉野는 기독교의 낙천적·적극적 人生觀에 매료되어 二高入學 다음해인 1898년 여름 仙臺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吉野의 信仰은 무엇보다도 肯定的인 人間觀 및 그에 토대를 둔 人生에 대한 무한한 낙관주의로 나타났다. 기독교와의 만남은 한편으로 吉野의 思想的 근거를 제공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文學少年인 그를 少年期에서 결별할 수 있는 일개의 독립된 人格으로 성장하게 했다. 1900년 二高를 졸업한 그는 같은해 7월 東京帝國大學 法學部 政治學科에 입학했다.

동경에 와서 吉野의 사상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람은 東京의 本郷敎會牧師 海老名彈正이었다. 1900년 7월 海老名에 의해 창간된 雜誌『新人』은 당시의 청년학생들을 敎會에 끌어들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吉野가 海老名으로부터 받은 최대의 사상적 영향은 그의 歷史主義의 聖書解釋이었다. 海老名은 哲學 및 歷史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결과를 敎義上的 문제해결에 적용하곤 했는데 이러한 海老名の 聖書研究의 方法이 吉野의 信仰뿐만 아니라 學問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海老名の 철학적 기초는 독일 觀念論 특히 헤겔철학이었으며 바로 이 헤겔철학이 海老名을 통하여 吉野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吉野가 大學의 穗積陳重의 法理學세미나에서 헤겔을 테마로하여 행한 보고를 토대로 쓴 처녀작 『헤겔法律哲學의 基礎』는 海老名の 사상적 영향을 빼고는 상상할 수 없다.

4) 吉野作造, “新人運動의回顧”, 『新人』第24卷 4號, (1925年 4月), p. 13.

당시 吉野에 의하면, 종교와 과학, 신앙과 이성의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의 방향을 시사한 것이 바로 헤겔철학이었다. 그는 우주의 본질을 로고스로 보고, 현상을 구체화한 로고스로 보는 헤겔철학이야말로 경험적 인식, 변증법적 발전을 거쳐 초경험적 실재의 인식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연성을 보장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仙臺에서의 『기독교에의 귀의, 東京에서의 海老名彈正과의 만남』은 吉野의 사상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거기다 本郷教會 및 『新人』에서의 吉野의 계몽활동은 사상가로서의 吉野의 自己表現의 양식과 방법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海老名이 教會를 통하여 福音의 傳道에 전념했다면 吉野는 大學을 통하여 眞理의 傳道에 헌신했다고 할 수 있다.

吉野에 의하면, 政治學에는 국가의 본질과 정치의 이상을 연구하는 정치철학과 현실의 국가운영에 필요한 手段・方法을 연구하는 과학적 정치학이 있다. 吉野의 수많은 時事論文은 말하자면, 그의 정치철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理想論과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과학적 정치학의 소산인 實踐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주된 관심은 후자인 과학적 정치학에 있었다. 정치적 이상을 당시의 역사적 조건하에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말하자면 目的에 대한 手段・方法의 탐구와 그 提言에 있었다. 그가 實踐의 理論家⁵⁾로 불리우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나의 立論의 기초는 언제나 정치의 실체에 걸맞게 점진적 개혁을 하려는 태도」⁶⁾에 있다고 한 吉野는 정치에서 「理論의 當否」보다 「效果의 得失」을 더 중시했다. 급진주의자의 결함은 이론적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 나머지 그 실제적 적용의 노력을 게을리 한다고 보았다. 원래 정치는 「現實에 입각한 努力」이며 「現實主義에 反하는 정치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5) 長谷川如是閑, “吉野作造博士と彼らの時代” 『中央公論』, 1927年 5月號, p. 400.

6) 吉野作造, “統帥權問題の正體”, 『中央公論』, 1930年 6月號.

다」⁷⁾는 것이 吉野의 기본입장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漸進主義는 현실의 근본적 변혁을 향한 急進主義에 대한 對抗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2. 民本主義思想의 전개

吉野에 의하면 民本主義는 기독교의 이상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民本主義의 연구 및 주장은 역사를 통해 나타난 神의 인식과 찬미이다. 즉 民本주의의 이론적·역사적 연구와 그에 토대를 둔 정치적 주장에 있어서 吉野의 학문과 신앙은 일치하고 있다.

吉野는 역사의 진보의 방향을 專制에서 自由로 파악하여 러시아를 이 역사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露日戰爭을 專制에 대한 自由의 투쟁, 歴史的 必然性에 따른 歴史的 진보를 위한 전쟁 그리고 民本主義의 실천이란 이름으로 무리한 정당화를 했다. 그는 「러시아 人民의 安福을 위해 露日戰爭에서의 러시아의 敗北를 간절히 빈다」⁸⁾고 했다.

이는 吉野자신의 論據나 動機와는 관계없이 福澤諭吉이 清日戰爭을 文明과 野蠻의 싸움으로 본 것과 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吉野는 民本主義성립의 정치적 필요조건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다수가 참가하여 그 다수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⁹⁾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치적 民本주의는 吉野의 정의에 의하면, 정책결정의 방법에 대한 原則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民本주의는 法이론상의 문제인 主權의 所在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人民主權論이 반드시 民本주의의 정치적 필수조건은

7) 吉野作造, 『無產政黨の迎へま道』, 文化生活研究會, 1927, pp. 70~76.

8) 吉野作造, “靈國に於ける民主的勢力の近狀”, “露國の敗北は世界平和の基や”, 『新人』第6卷 第3號, 1904, p. 26.

9) 吉野作造, “憲政の本義を説いて其有終の美を濟すの途を論ず”, 『中央公論』, 第31卷 1號, 1917年 1月, p. 49.

아니며, 君主主權에서도 민본주의는 성립한다. 민본주의는 「政治上的의 主義이지 法律上的의 說明이 아니다.」¹⁰⁾

그 다음, 민본주의는 政治的 手段에 착안한 것이지, 政治의 目的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 민본주의는 政治의 目的이 아니라 手段, 內容이 아니라 形式, 그리고 理念이 아니라 組織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¹¹⁾

그런데 吉野의 民本主義는 政治적 民本主義만은 아니다. 그는 政治적 민본주의는 高貴의 정신적 기초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人格主義로서의 民本主義이다. 吉野의 人格主義는 칸트의인 의미의 人格주의로서 個人을 目的가치로 하여 그것에 절대적 존엄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人格主義야말로 民主政의 본질이며 政治적 민본주의도 이 人格主義에 연원을 둔다¹²⁾고 했다.

또한 吉野는 人格주의로서의 민본주의를 精神的 貴族主義라고 했다. 政治적 민본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民衆의 도덕적 판단력¹³⁾이지만 그것은 精神的 貴族主義에 의해 연마되어야 한다고 본다. 政治적 민본주의는 정신적 귀족주의와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多數와 小數가 相互 補完하는 나라가 가장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政治적으로 보면 다수의 의향이 나라를 지배하지만, 이를 정신적으로 보면 小數의 賢者가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民本主義인 동시에 貴族主義이기도 하며, 平民政治인 동시에 英雄政治이기도 하다. 요컨대 政治的 民本主義는 精神的 貴族主義와 혼연일체가 됨으로써 憲政의 꽃이 핀다¹⁴⁾는 것이다. 吉野는 당시 日本의 元老나 官僚政治家가 「少數賢者」로서의 「社會的 職分」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그의 눈에는 당시

10) 위 論文, p. 59.

11) 위 論文, p. 49.

12) 吉野作造, 「デモクラシーと基督教」, 『新人』, 第20卷 第3號, (1920年 3月) p. 7.

13) 위 論文, p. 6.

14) 吉野作造, “憲政の本義を説いて其有終の美を濟すの途を論ず”, p. 67.

의 日本은 정치적 민본주의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귀족주의도 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양자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吉野가 제창한 民本主義의 과제였다.

그러면, 吉野의 정치적 민본주의와 인격주의 내지 精神的 귀족주의를 한 데 묶어주는 실천적인 代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이 바로 吉野의 代議政治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생각으로는, 최량의 정치는 民衆政治에 기초를 둔 貴族政治라고 생각한다. 소위 귀족정치만 있고 민중정치가 없어도 안되고, 소위 민중정치만 있고 귀족정치가 없어도 안된다.……내가 말하는 소위 貴族的 民衆政治는 代議政治에서 비로소 가능하다.」¹⁵⁾

이 代議政治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주체가 바로 政黨이다. 吉野는 「少數의 賢者」가 근세정치에서 그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는 길은 政黨政治 이의에는 없다」¹⁶⁾고 하여 政黨政治야말로 그가 말하는 貴族的 民衆政治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吉野의 민본주의사상은 固定的인 것이 아니라 大正期日本의 국내외의 사태의 진전에 따라 수정·변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民本主義는 藩閥官僚세력이나 그 이데올로그 및 사회주의자로부터의 비난·공격 등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현실주의적 배려로 다양한 표현형태를 취하면서 점차 급진화해 갔다. 여기서 그의 민본주의론의 전개·수정과정을 露日戰爭後 1916년까지의 시기와 그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하자.

吉野는 입헌주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民本主義」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論說, 「憲政의 本義를 말하고 그 有終

15) 吉野作造, “民衆의示威運動을論ず” 『中央公論』, 第29卷 第4號, (1915年 4月), pp. 103~104.

16) 吉野作造, “寺內內閣의出現に對する儼正批判” 『中央公論』, 第31卷 第12號, (1917年 11月), p. 79.

의 美를 거두기 위한 길을 論함」(1916)이라는 것이었다.

이 논설의 핵심은 입헌정치는 헌법의 조문에 의거하여 행하는 정치인 동시에 그 정신인 민본주의에 따라 행하는 정치라야 한다.

원래 민본주의란 말은 영어의 democracy의 번역어인데 이 데모크라시는 吉野에 의하면 두개의 서로 다른 의미로 쓰여져 왔다. 그 하나는 「國家의 主權은 法理上 人民에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國家主權의 활동의 基本목표는 政治상으로 人民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이다. 吉野는 前者를 民主主義, 後者를 民本主義로 번역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민본주의는 國체여하와 관계없이 주권자가 정권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政治상의 主義로서 그것은 두가지 내용을 가리킨다. 하나는 정권운용의 目的, 즉 정치목적이 일반민중의 福利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운용방법의 결정, 즉 정책의 결정은 일반민중의 의향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吉野의 민본주의는 인민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代議政治야말로 민본주의적 정치의 유일한 형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藩閥官僚세력과 대결하면서 어떻게 해서 代議政治를 완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했다. 이를테면 선거도덕의 고취, 언론 자유의 존중, 선거권의 확장, 의원의 質的改善, 정치적 罪惡에 대한 法的·社會的 裁制의 강화, 책임내각제의 실현 등의 주장은 이를 위한 실천이론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吉野의 民本主義理論이 발표되자 논단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켜 上杉愼吉, 內田良平 등의 國家主義者, 山川均, 大杉榮 등의 社會主義者나 無政府主義者 등이 吉野論文에 대한 비판을 개시하여 그후 이른바 民本主義論爭이 전개되었다. 우선 上杉愼吉, 內田良平, 杉中種吉 등 국가주의자들은 吉野의 민본주의론을 國體에 反하는 위험사상이라고 비난 공격했다.

특히, 杉中種吉은 민본주의비판을 위하여 월간잡지 『新時代』를 창간하여

反民본주의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주의자들은 「人民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主義로서의 전통적 민본주의는 어디까지나 皇室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吉野의 정권운용의 方法에 관한 주의로서의 민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吉野는 이 논쟁의 과정에서 1918년 민본주의에 수정을 가했다. 吉野는 앞에 지적한 1916년의 논문에서 민본주의에는 두개의 내용이 있다고 한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자기비판한다. 즉 「정치」의 실질적 목적에 관한主義와 정치의 목적을 가장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한 「정권운용의 방법에 관한主義」는 전혀 별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정치의 目的에 대한 최고 유일의 진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의 目的에 관한 민본주의는 국가주의와 함께 국가와 민중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主義」에 불과하다고 하여 정치의 목적과 원리로서의 민본주의의 상대적 성격을 밝힌 다음, 「정권운용의 방법에 관한主義」로서의 민본주의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目的이 아닌 方法으로서의 민본주의는 그에 의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운용에의 참여요구이며, 主權者의 입장에서는 민의의 존중을 의미하며 그리고 객관적 제도의 입장에서 보면, 참정권의 부여에 의해 국민이 정치의 방침을 좌우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권운용의 방법에 관한 민본주의는 君主主權과 추호도 모순되지 않는다」¹⁷⁾고 했다.

그다음 제 1차 세계대전후의 社會改造論의 유행, 普選運動의 적극적 양양, 無產運動의 발전 등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吉野는 민본주의라는 말 대신 데모크라시라든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참정권확대론에서 「普選論」으로 그 주장을 급진시킴과 동시에 사회주의와의 관련에서 그의 民本主義論을 再修正하기에 이르렀다.

1919년 2월 26일 개최된 제12회 黎明會강연회에서 행한 吉野의 연설은

17) 『吉野作造博士 民主主義論集』第1卷, (新紀元社, 1948), pp. 13~44, 67~90.

이러한 민본주의再修正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오늘날 데모크라시는 두개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社會的 要求이고 다른 하나는 純政治的 要求이다. 社會的 要求란 것은 우리들의 生活—경제생활만이 아니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참정권을 요구하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정의 운용에 참여하려는 것이 純政治的 要求이다.」¹⁸⁾

데모크라시는 첫째로, 국민의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社會的 要求」와 둘째로, 참정권을 요구하는 「純政治的 要求」가 있어서 그 양자는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본주의의 再修正, 사회주의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吉野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위 社會主義는 民主主義의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 廣義의 社會政策의 項目 가운데 그 지위를 점한다. ……民主主義者는 반드시 社會主義者라고 할 수는 없으나 社會主義者라도 괜찮다. 그러나 결코 過激主義者일 수는 없다.」¹⁹⁾

사회주의는 「社會政策의 項目」에 들어가고 민본주의자는 사회주의자라도 좋으나 과격주의자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함으로써 吉野는 大正데모크라시가 그 第三段階를 맞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데모크라시論」에 이행하고 있던 狀況, 그리고 無產運動이 分化, 發展하는 狀況下에서 자기의 民主主義의 思想的位相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이처럼 吉野는 그의 민본주의 사상의 전개과정에서 두 차례의 修正을 가했다. 1918년 첫번째의 수정이 정치의 目的과 手段, 본질과 현상 등이 무매개적으로 混在해 있던 그의 초기의 민본주의사상을, 政治目的과 정치운용방법이라는 별개의 두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후자 즉, 目的이 아닌 운용방법에 역점을 둔 것이라면, 1919년 두번째의 수정은 사회주의의 등장

18) 吉野作造, “デモクラシーに關する吾人の見解”, 『黎明講演集』, 第1卷 第2卷, p. 78.

19) 吉野作造, “民主主義・社會主義・過激主義” 1920年 『吉野作造博士民主主義論集』, 第5卷, pp. 130~131.

이라는 상황의 압력을 받아들여, 이른바 社會的 要求와 純政治的 要求를 불가피한 관계에서 파악하면서도 無產政黨이나 無政府主義 등 급진사상과는 一線을 긋는 형태의 것이었다.

1918년 전후를 계기로 해서 나타난 吉野의 민본주의 수정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첫번째의 수정에서 두번째 수정에로의 이행은 입헌주의의 연장선에서 內閣責任制의 실현을 목표로하는 內政・民本主義와 外交・帝國主義의 실현을 주장한 단계에서 內政=정치적・경제적・사회적 데모크라시와 外交=國際民主主義와의 통일적인 추진을 주장하는 단계에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吉野의 민본주의론은, 정치적 민본주의와 그것을 밑받침해 주는 人格주의를 필수적 내용으로 포함하면서 狀況의 진전과 함께 社會的 民本主義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이 말한 「社會的 要求」였다. 1918년 吉野가 福田德三, 新渡戸稻造 등 당대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지식인과 함께 결성한 계몽운동단체인 黎明會가 내세운 강령가운데 第3條가 바로 이 社會的 民本主義의 내용을 담고 있다. 社會的 民本主義는 貧富격차의 완화, 日常生活의 安定을 촉진하는 등 넓은 의미의 社會政策이었다. 社會主義를 좁은 의미의 階級史觀이나 唯物史觀으로 보지 않고, 넓은 의미의 사회적 正義의 확립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사회주의도 또한 民本主義의 外延속에 위치지을 수 있을 것이다.²⁰⁾

그러나 吉野는 無產政黨運動에 대해서는 그 과격성뿐만 아니라 民衆의 직접적 정당참가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吉野는 民衆의 의사를 구체화하여 그것을 정치과정에 도입하는 정당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민중자신이 政黨化하는 데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정

20) 吉野作造, “政治上のデモクラシー” 『新人』, 第20卷 第4號, (1920年 4月), p. 6.

당은 정치가가 만드는 것이며 정치전문가가 아닌 일반민중은 이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견해이다. 그 이유는 民衆은 정치의 최종적 감독자인데 만약 민중이 政黨化해버리면 정당은 그 감독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左右양쪽으로부터의 비난, 공격에 직면해 있던 吉野는 民本主義者와 社會民主主義者와의 동맹에 의해 日本의 民主化를 성취하려는 노선을 선택했다. 그가 1925년에 社會民衆黨의 産婆役이 된 것도 이러한 태도의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의 원리가 그의 사상형성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한, 사회주의에의 접근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물론 그의 이러한 태도는 無產政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勞動運動, 더우기 식민지, 半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도 일관되었다.

이때면, 1926년의 京大學生事件에 직면하여 吉野는 그들 학생이 共產主義를 「허용된 방법」에 따라 그 점진적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배척할 것이 못되나 그들이 「凶暴한 직접행동」 즉 「제3인터내셔널의 戰術」을 채용한 이상 「法的 制裁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²¹⁾고 했고, 「우리는 공산당의 운동을 전면적으로 反對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책 강령의 대부분에 異議가 없다. 그러나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것은 그 戰術이다. 실로 가공할 것은 共產主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手段에 있다」²²⁾고 했다.

또한 후술하는 中國의 5·4運動이나 韓國의 3·1運動에 대해서도 그 의도에는 共鳴한다고 하면서 그 「과격한」 手段의 선택에는 비판한다고 했다. 吉野는 中國에 대해서는 共產黨보다 분명히 國民黨을 지지하고 있었고 韓國에 대해서도 「自治의 인정」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와 같은 식민지 및 그 정책에 대한 태도는 吉野의 民本主義 사상의

21) 吉野作造, “學生大檢舉た終まる諸問題” 『中央公論』, 1927年 10月號.

22) 吉野作造, 『現代政局の展望』, 日本評論社, 1930, p. 61.

입장에서는 일관된 것인지는 모르나 식민지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미온하기 짝이 없고, 바로 이 식민통치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는 吉野의 民本主義의 限界를 쉽게 읽을 수 있다.

3. 帝國主義에 대한 태도

大正期日本에 있어서 이른바 제국주의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의 확대 내지 영토의 확장에 의한 大帝國의 건설을 지향하는 대외팽창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쟁점은 대외팽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효성문제였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적, 경제적 제국주의 정책인가 아니면 武斷的인 제국주의 정책인가에 있었다. 입헌주의자와 국가주의자는 다같이 제국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方法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內田良平 등 국가주의자는 日本국가야말로 유일, 최고, 절대의 有機體의 全體이며 이 전체로서의 國家의 個人에 대한 압도적 우월과 국가를 위한 滅私奉公을 다하는 것만이 최고의 도덕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지상주의의 견지에서 弱肉強食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大日本제국의 生存과 발전을 도모하는 길은 무단적인 대외팽창정책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우기 이러한 대외팽창주의는 근대적 제국주의라기보다 日本의 대외적 지배권자세를 확대하려는 大國志向型의 내셔널리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주의자들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제국주의와는 異質的인 것으로, 단순히 자국의 지배권을 대외적으로 확대하여 大帝國을 건설하겠다는 의미에서의 自國至上主義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浮田和民 등 입헌주의자는 日本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산업발전의 촉진과 대외적으로 무역이나 이민 등을 통한 「實業上의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국주의를 이른바 獨占資本主義와의 관계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적 발전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자들보다는 패권의인 제국주의개념에 가까운 이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입헌주의자는 이 입헌주의원리와 모순하는 제국주의의 支持者이기도 했다. 물론 그들의 제국주의는 武斷的인 제국주의는 아니고 이른바 實業上의 제국주의로서 주로 경제적인 대외팽창정책을 주장했으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당시의 국내적·국제적 조건하에서 日本의 제국주의적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日本이 이미 획득한 중국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적 권익이나 韓國이나 臺灣에서의 식민지의 유지를 기정사실로 보았다. 이처럼 大正데모크라시 第一段階의 정치이론은 입헌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상호모순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 입헌군주정체를 日本제국주의의 대외팽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국내체제로 보았다. 특히 一段階의 이론적 지도자의 한 사람인 浮田은 입헌주의와 제국주의라는 모순되는 두가지 원리를 社會進化論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입헌주의의 원리는 日本제국주의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의 원리를 보강하는 종속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그의 사상은 이른바 입헌주의적 제국주의 사상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입헌주의자들의 제국주의론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大正데모크라시 第二段階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차 제국주의에 대해 입헌주의의 원리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화됨으로써 입헌주의의 노골적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은 약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日本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에 관한 한 大正데모크라시 第一段階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第一段階에 있어서 「朝鮮은 日本帝國主義의 標本」이라고 했던 浮田은 第二段階에 들어와서도 이른바 「對中國 21 個條의 要求」를 「極東의 平和와 秩序」

23) 浮田和民, 『滿洲國獨立と國際連盟』, (早稲田大學出版部, 1932), p. 181.

²³⁾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처사로 정당화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 입헌주의 사상을 제승·발전시킨 第二段階에서의 이론적 지도자인 吉野의 제국주의 및 그와 관련한 植民政策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吉野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武力 못지 않게 國際道德을 중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白人들 가운데는, 참다운 文明의 수립은 白人만이 하고 有色人種은 그것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有色人種을 정복하는 것은 文明과 人道를 위한 것이며 白人은 正當한 權利로서 아프리카人, 印度人을 복종, 壓迫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언제나 적지않게 분개하는 바이다. 그러나 日本人도 臺灣·朝鮮·支那人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은가.」²⁴⁾

그러나 吉野는 한편 日本을 비롯한 列強의 아시아·아프리카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國際道德의 관점에서 人種差別을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 제국주의적인 국제현실에 있어서는 「國際的正義·公道」보다 「婉力」이 지배적이라는 현실인식에 의거하여 浮田와 마찬가지로 武斷的인 제국주의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對華 21 個條要求」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吉野는 국제정치나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힘과 道德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矛盾 내지 그의 民本主義의 사상내재적 한계를 드러냈고, 결과적으로는 理想의 점진적 실현을 기도하던 吉野의 현실주의가 그의 理想과 모순되는 實踐論이 되고 말았다.

日本의 生存과 發展을 회구해 온 내셔널리스트로서의 吉野는 그 내셔널리스트로서의 心情이나 현실주의적 配慮에서 妥協的인 주장이나 때로는 그의 思想을 사실상 부정하는 逸脫을 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후 그의 「道德에 의한 支配」라는 理想은 自由·平等·獨立(民族自決)등의 민주주의원리에 토대를 둔 對外政策이나 국제관계의 수립을 지향하는 노력이

24) 吉野作造, “國際競爭場裡に於ける最後の勝利” 『新人』 (1915年 12月號), pp. 21~27.

운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4. 中國革命觀

吉野가 中國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1906년 1월에서 1909년 1월에 걸친 滿3年間の 中國體驗이었다.

그는 天津에서 袁世凱의 長子 克定の 家庭教師로 있었다. 당시 淸나라에는 약 500명의 日本人教師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法律 및 政治의 교육에 종사한 사람은 약 45명이었다. 왜냐하면 露日戰爭후의 淸나라에는 입헌정치의 氣運이 일고 있어서 日本人고문이나 교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吉野는 北洋法政專門學堂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生徒 가운데는 그후에 北京大學교수이며 中國共產黨創立者의 1인이었던 李大釗도 있었다. 吉野는 당시의 中國이 형식주의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고, 이 형식주의를 타파하려면 무엇보다 「平民」의 자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日本人이 해야 할 것은 가장 平凡한 常識을 中國人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²⁵⁾고 주장했다.

그런데 실제로 吉野가 中國革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袁世凱에 대한 南方革命派의 武裝叛亂이 발발한 1916년경부터였다. 당시만해도 아직 中國革命을 과소 평가하고 있던 吉野는 中國에 대한 列強의 干渉에 대항하여 日本도 필요한 한도내에서 中國에서의 세력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²⁶⁾

그런데 吉野는 袁世凱가 中國人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바로 그 때, 南方革命派의 反袁世凱運動을 지원하고 있던 東京帝大敎授 寺尾 亨 및 頭山滿이 吉野에게 支那革命史의 편찬을 위촉했던 것이다. 이것이 中國革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5) 吉野作造, “支那人の形式主義”(再び)『新人』, 第7卷 第9號, (1906年9月), p. 18.

26) 吉野作造, 「日支交渉論」, 警醒社書店, 1916, pp. 228~247.

1918년에 나온 『支那革命史』에서 吉野는 中國혁명운동에 대한 共感和 支持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²⁷⁾ 中國혁명운동에 대한 吉野의 同情과 理解는 그것이 민족주의, 특히 抗日民族主義의 형태로 격화한 후에도 어느 정도 一貫되어 5·4運動에 대한 평가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19년 5월 4일 北京大學生들이 親日派官僚인 曹汝霖, 章宗祥 등을 습격한 사건에 대하여 吉野는 그들 학생들이 취한 수단은 용인하지 않았으나 그 動機 및 目的에는 깊은 共鳴을 보였다.

Ⅲ. 吉野作造의 韓國論

吉野가 韓國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中國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오래 된다. 그것은 그가 大學졸업 이듬해 本鄉敎會 관계자를 중심으로 「朝鮮問題研究會」를 만들때까지 거슬러올라 간다. 吉野는 敎會에서 알게 된 한국인 청년 李殷德으로부터 한국의 실정을 듣고 비로소 한국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이어 그는 친구들과 함께 島田三郎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었다. 이때 島田은 한국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日本이야말로 「朝鮮救濟의 職分」을 가진다고 하고 韓日관계가 아일랜드와 英國과의 관계와 같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²⁸⁾ 이 강연에 감격한 吉野는 島田, 海老名와 상의하여 「朝鮮問題」에 관한 연구회를 만들고 그 자신이 幹事가 되었다. 이 연구회는 바로 吉野자신이 韓國研究의 현실적 어려움을 애기한 친구 小山東助의 충고를 받아들여 단기간에 해체되었으나, 당시의 吉野는 한편 정치운동에의 의욕도 가지고 있어서 「朝鮮問題研究會」를 그 무대로 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朝鮮問題」에 진지하게 접근하려 하면서도, 이왕이면 知名度가 높은 사람들과 같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名譽心이 크게 작용했다고 고백하고 있다.²⁹⁾ 그의 韓國論

27) 吉野作造, 『支那革命小史』, (萬葉書房, 1918), p. 1.

28) 『新人』, 1905年 3月號, p. 84.

29) 田中惣五郎, 『吉野作造』, (未來社, 1958), p. 85.

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3·1 운동전후의 시기였다. 당시 日本에서는 파리講和會議과 日本대표에 의한 「人種平等決議案」의 제출에 호응하여 미국과 호주에서의 日本人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吉野는 日本人의 二重的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다. 즉 日本人 자신이 黃人種에 대한 차별에 눈을 감으면서 白人種에 대해서 차별의 철폐를 요구한다는 것은 日本人의 二重性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吉野는 그 단적인 예로 韓國人の 子弟가 日本人學校에 다닐 수 없는 것을 들었다.³⁰⁾ 吉野는 日本統治로 「朝鮮人の 物質的幸福」³¹⁾이 증진되었다고 말하면서 「日本人이 二重的 기준을 버리고 朝鮮에도 보편적 正義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吉野에 있어서 이 正義實現의 구체적 표현은 日本人과 韓國人の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日本人이 미국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日本人이 스스로 韓國人에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논리는 한국인에 「自治」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한국의 3·1運動은 日本식민통치의 파산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吉野는 한국인이 自治能力이 없으니까 日本人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긍정하려면 日本人 자신이 통치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騷擾鎮壓을 보고 우리는 이 試驗에 落弟했다」³²⁾고 토로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이 「교육받고 제발되어 그러한 운동(3·1 운동 : 인용자)을 일으킨 것은 흡사 支那의 유학생이 日本의 교육을 받고 革命兒가 되는 결과와 같다」³³⁾고 말하면서 中國 민족주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3·1 운동을 통해 나타난 韓國民族主義에 대해서도 同情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말하자

30) 吉野作造, “人種의差別撤廢運動者に與ふ”, 『中央公論』, 第34卷 第4號, (1920年 3月), p. 73.

31) 吉野作造, “朝鮮統治に於ける『向上』と『正義』”, 『中央公論』, 第34卷 9號, (1920年 9月), p. 222.

32) 吉野作造, “朝鮮人の自治能力” 『中央公論』, 第34卷 9號, (1920年 9月), p. 222.

33) 吉野作造, “對外的良心の發揮”, 『中央公論』, 第34卷 4號, (1920年 4月), p. 107.

면 그의 民本主義論理를 對外的으로 적용한 셈이 된다.

吉野는 「異民族統治의 理想」은 그 民族에게 「政治的 自治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武斷의 抑壓政策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국의 民族運動에 대해서도 그 운동의 도덕적 정당성과 식민지통치의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어디까지나 「保護者的」 입장을 취했으며, 식민통치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나 식민지 한국의 해방이나 독립의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내셔널리스트로서의 吉野의 限界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3·1運動에 대한 그의 태도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3·1운동은 日本人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일이고 법률적으로도 배척해야 할 것이나, 朝鮮人の 입장에서 보면 日本의 國法에 反抗하는 것이 순수한 도덕적 입장에서는 「不逞의 暴行」이라고 할 수 있다.……만약 그들이 個人이나 民族의 自由를 위해서나, 制度上 또는 社會上의 正義의 確立을 위한 信念을 토대로해서 日本의 統治를 批判하고 그 根本要求를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주장을 한다면 비록 그 형태가 法秩序에 대한 反抗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그것을 배척할 수 없다. 朝鮮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크게 反省하여 朝鮮統治의 근본적 大改革을 통하여 排日運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선 제휴할 필요가 있다.」⁸⁴⁾

그래서 吉野는 日本의 韓國統治의 改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 ① 韓國人에 대한 差別待遇의 철폐.
- ② 武人政治의 철폐, 文民統治의 실현.
- ③ 獨自의 文化를 갖고 있는 韓國民族에 대한 同化政策의 방지.
- ④ 言論自由의 제공 등

이와 같은 吉野의 韓國觀은 그의 「呂運亨論」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19년 12월 呂運亨은 日本의 原敬內閣의 초청으로 日本을 訪問하여 大正期 日本의 정치적 및 지성적 지도자들과 만난 일이 있다. 이 사건은 원래 原敬內閣이 韓國統治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韓國의 유력

84) 吉野作造, “朝鮮青年問題”, 『新人』, (1921年 2·3月號), pp. 266~276.

한 政治人의 한 사람인 呂運亨을 골라 그를 회유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金九를 중심으로 한 上海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呂運亨의 日本訪問을 「親日行脚」으로 매도하고 나섰다. 그런데 정작 呂運亨 자신은 日本의 朝野의 지도자들을 만나 韓國獨立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日本의 政界와 知識界에 큰 파문을 던졌던 것이다. 吉野는 이 때 만난 呂運亨과의 회견내용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呂氏의 주장가운데는 분명히 침해할 수 없는 正義의 번득임이 보인다. 그 品格에 있어서나, 그 識見에 있어서나, 나는 그에게서 보기도문 존경할만한 人格을 발견했다. 우리가, 呂氏가 파악하고 있는 一片의 正義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장래 日本의 도덕적 生命은 결코 신장할 수 없다는 것을 切感하는 바이다.」³⁵⁾

「呂氏는 분명히 世界的 正義의 확립을 위해 행동한다는 의식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³⁶⁾

呂運亨의 日本訪問을 둘러싸고 日本의 政界에서는 與・野가 크게 대립하는데 그 결과는 대체로 政府與黨인 原敬內閣의 懷柔政策의 失敗로 끝나게 되었다.

吉野는 이른바 「呂運亨問題」를 둘러싼 政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時評을 쓰고 있다. 즉 「呂運亨氏를 招請한 政府의 태도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없다. 아무 준비없이 불려서 그와 대항할만한 아무런 道德的 見識도 없이 만남으로써 결국 要領不得의 결과가 된 것은 유감천만의 일이다.」³⁷⁾

이상에서 우리는 原敬內閣의 呂運亨 懷柔政策과 吉野作造의 呂運亨會見記를 통하여 大正期 日本의 韓國植民統治의 성격과 吉野의 韓國觀의 一端을 찾아 볼 수 있고, 나아가 日本國內政治와 그 對外適用에 있어서 吉野作造의 民本主義思想이 가지는 특성과 限界를 쉽게 알 수 있다.

35) 吉野作造, “所謂呂運亨事件について”, 『中央公論』, (1920年 1月號), p. 178.

36) 위 論文, 같은 page.

37) 위 論文, pp. 177~178.